#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 주가 현황

|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원) | 전일 종가 (pt, 원) | 시가총액 (십억원) | 수익률 (%) 1W | 1M | 3M | 6M | 12M | YTD | 주가 추이 |
|---|---|---|---|---|---|---|---|---|---|---|---|
| KOSPI | | | 8,727 | 6,784,812 | 7.8 | 16.5 | 57.2 | 118.2 | 196.2 | 107.1 | |
| 통신서비스 | | | 462 | 42,867 | -1.3 | -1.8 | 13.9 | 36.5 | 38.9 | 38.8 | |
| SK텔레콤(017670) | BUY(M) | 118,000(M) | 100,100 | 21,500 | -7.4 | -1.2 | 31.2 | 88.9 | 81.3 | 87.1 | |
| KT(030200) | BUY(M) | 73,000(M) | 56,600 | 14,264 | 5.2 | -3.6 | -3.9 | 4.4 | 6.6 | 7.6 | |
| LG유플러스(032640) | BUY(M) | 21,000(M) | 16,260 | 6,901 | 9.0 | 0.3 | 7.0 | 6.8 | 23.5 | 10.5 | |

## ■ 주간 Comment(06/10~06/16)

**Key Takeaway: AIDC 경쟁 우위 지속**

■ 지난 한주간 통신업종은 -1.3%(vs KOSPI +7.8%)로 시장 수익률을 하회. 테크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 통신업종은 소외.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외국인은 SKT와 LGU+ 순매수, KT 순매도

■ **AIDC에서 나타나는 변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통신사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전망. 데이터센터 시장은 AI로 촉발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입지, 기술적 요구,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는 중. AI로 인한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글로벌 빅테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검토하는 중. 과거에는 입지가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절대적 우선순위. 최근에는 용도에 따라 입지의 우선순위가 다변화되는 중. 기술적 요구사항도 1)전력밀도, 2)냉각방식, 3)하중, 4)에너지효율, 5)네트워크 등 변화하는 중. AIDC 특별법도 기회 요인으로 비수도권 하이퍼스케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 최근 AIDC 수요를 감안할 경우 통신3사의 구축 용량은 기존에 제시한 목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p3 참고)**

**데이터센터 – AIDC 기술적 요구사항 비교**

| 기존 DC (Cloud · Enterprise) | 구분 | AIDC (AI 전용) |
|---|---|---|
| CPU 서버 중심 | 주요장비 | GPU · AI Accelerator 서버 |
| 4~8kW | 랙당전력 | 30~150kW → 최대 600kW |
| 공기 냉각 (CRAC/CRAH) | 냉각방식 | 액체 냉각 (DLC · Immersion) 필수 |
| 800~1,000kg/㎡ | 바닥하중 | 1,500~2,500kg/㎡ |
| 10G / 40G Ethernet | 네트워크 | 400G / 800G · InfiniBand |
| 1.5~1.8 | PUE 목표 | 1.2~1.3 |
| 수도권 접근성 · 고객 근접성 | 입지 우선순위 | 전력 가용량 · 부지 확보 · 용수 |

자료: kt clou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Valuation

| | PER(x) 2026C | 2027C | PBR(x) 2026C | 2027C | ROE(%) 2026C | 2027C | DPS(원) 2026C | 2027C | D Yield(%) 2026C | 2027C |
|---|---|---|---|---|---|---|---|---|---|---|
| KOSPI | 9.2 | 7.2 | 2.2 | 1.7 | - | - | - | - | 1.3 | 1.5 |
| 통신서비스 | 12.8 | 11.8 | 1.0 | 1.0 | - | - | - | - | 4.0 | 4.1 |
| SK텔레콤 | 17.7 | 16.2 | 1.6 | 1.5 | 9.1 | 9.3 | 3,394 | 3,532 | 3.4 | 3.5 |
| KT | 9.9 | 9.1 | 0.7 | 0.7 | 7.7 | 8.0 | 2,443 | 2,578 | 4.3 | 4.6 |
| LG유플러스 | 9.6 | 8.7 | 0.7 | 0.7 | 7.8 | 8.2 | 703 | 745 | 4.3 | 4.6 |

## ■ 2026E 실적

| (십억원, %) | SK텔레콤 추정치 | 컨센서스 | 차이 | KT 추정치 | 컨센서스 | 차이 | LG유플러스 추정치 | 컨센서스 | 차이 |
|---|---|---|---|---|---|---|---|---|---|
| 영업수익 | 17,663 | 17,757 | -0.5 | 27,714 | 27,713 | 0.0 | 15,698 | 15,671 | 0.2 |
| 영업이익 | 1,841 | 1,909 | -3.5 | 2,039 | 2,081 | -2.0 | 1,092 | 1,121 | -2.6 |
| 세전이익 | 1,638 | 1,651 | -0.8 | 1,946 | 2,035 | -4.4 | 935 | 925 | 1.0 |
| 지배순이익 | 1,230 | 1,215 | 1.2 | 1,376 | 1,437 | -4.3 | 765 | 725 | 5.6 |

## ■ 수급 현황

| (십억원, %) | 개인 순매수 1W | YTD | 기관 순매수 1W | YTD | 외국인 순매수 1W | YTD | 외인 지분율 |
|---|---|---|---|---|---|---|---|
| SK텔레콤 | -24.0 | -153.3 | -24.1 | 315.8 | 48.6 | 315.8 | 36.9 |
| KT | -22.9 | -64.7 | 23.9 | 67.3 | -1.4 | -12.7 | 49.0 |
| LG유플러스 | -29.9 | -16.3 | 25.0 | 43.1 | 5.0 | -19.6 | 41.8 |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News Flow ▲Top 3

| 순위 | 뉴스 | 관련 기업 |
|---|---|---|
| NO.1 | SKT, 앤트로픽 추가 투자, "인프라·데이터·보안 협력 이어가겠다" | SKT |
| NO.2 | SKT, 엔비디아와 GW급 'AI 팩토리' 짓는다, 2027년 한국서 첫 가동 | SKT |
| NO.3 | LGU+, 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적용, 노동위원회 "LGU+ 사용자성 인정" | LGU+ |

| | | | |
|---|---|---|---|
| (No. 1) | **SKT, 앤트로픽 추가 투자, "인프라·데이터·보안 협력 이어가겠다"** | (26.06.10, 뉴스1) | https://tinyurl.com/5e6yyznw |
| 처분 계획 없음<br>시리즈 H 펀딩 98조 | - 투자 규모는 미공개.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 실현 대신 사업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 지속 계획으로 당분간 처분 계획 없다는 입장<br>- '앤트로픽(Anthropic)' 시리즈 H 펀딩 라운드 전체 투자 유치 규모는 약 98조원<br>- 인프라, 데이터, 보안 등 사업 부문에서 앤트로픽 필요성 인정 | | |
| **Comment** | **- 금번 투자 라운드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참여. 한편, SKT는 최근 앤트로픽의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 윙'에 합류. 보안 부문에 더욱 깊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 | |
| (No. 2) | **SKT, 엔비디아와 GW급 'AI 팩토리' 짓는다, 2027년 한국서 첫 가동** | (26.06.08, 조선비즈) | https://tinyurl.com/4pc37eee |
| AI 팩토리<br><br>`27년 첫 가동<br>DSX 플랫폼 | - 양사는 AI 작업에 특화된 DC 'AI 팩토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최종 GW급 인프라로 확대할 계획<br>- 엔비디아 반도체, SW 플랫폼을 결합한 아시아 최대 규모 AI 클라우드 구축 계획<br>- 첫 AI 팩토리는 `27년 한국에서 가동될 예정. 이후 아시아 전역으로 인프라 확장할 계획. SKT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칩~데이터센터 운영까지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 추진 예정. 엔비디아 DSX 플랫폼은 반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AIDC 설계~최적화 방식을 정의하는 플랫폼 | | |
| **Comment** | **- AI 팩토리는 전력과 데이터를 투입해 AI 핵심 단위 '토큰'을 생산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개념. 금번 협력의 핵심은 낮은 토큰 생산 비용, 높은 전력 효율 동시 확보. SKT는 2H26 공급 예정인 베라 루빈 플랫폼 순차적 활용, AI 학습 및 추론 서비스 제공 예정** | | |
| (No. 3) | **LGU+, 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적용, 노동위원회 "LGU+ 사용자성 인정"** | (26.06.12, 아이뉴스24) | https://tinyurl.com/y5wuxrr9 |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 통신업계 최초로 노동위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 사례. 대상 노동자들의 인원은 약 1,250명<br>- 지부 측은 원청이 작업 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현장 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br>- 정식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 LGU+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 | | |
| **Comment** | **- 통신 설치,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 서비스 품질과 직접 연결.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원청이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 | | |
| | **앤트로픽 미토스 수출 통제에 한국 '글래스윙' 참여 제동** | (26.06.14, 연합뉴스TV) | https://tinyurl.com/yckyu9fb |
| 미토스5, 페이블5 |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당국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5, 페이블5' 접근 전면 중단 수출 통제 지침 발표<br>-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개발 사실을 공개하며 출범시킨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체<br>- 해당 조치는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적용 대상 | | |
| **Comment** | **- 해당 사례를 계기로 '소버린 AI' 중요성 재차 부각** | | |
| | **'AI 팩토리' 구축 본격화… 5G 단독모드 도입 관심** | (26.06.15, 머니투데이) | https://tinyurl.com/2wr5rmj8 |
| Physical AI 구현<br><br>5G SA 도입 시기 | - Physical AI 등 구현을 위해 초저지연, 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수. 이에 따라, '5G SA' 도입에 귀추가 주목<br>- 아직 국내 5G 서비스 대부분이 LTE 코어망을 함께 사용하는 NSA(비단독모드) 구조<br>- 이통3사 중 KT가 먼저 5G SA 상용화 시작. SKT와 LGU+ 4Q26 내 도입 목표. 중국의 5G SA 가용률은 80.9%, 일본 'NTT도코모'는 5G SA 무료 제공 중 | | |
| **Comment** | **- `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다만, 당시 이통사 연간 CapEx 규모 9.6조원에서 `25년 약 6조원으로 축소** | | |
| | **한 달간 제품 구매액 20% 환급, '갤S26 울트라' 체감가 100만원 초반대로** | (26.06.10, 머니투데이) | https://tinyurl.com/5n79duaf |
| | - 최상위 모델 '울트라' 체감가는 120만~130만대까지 내려가는 등 출고가 대비 할인 폭 확대. 출고가는 약 205만원<br>- 5월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는 58.4만건(+3% MoM). 3사 모두 번호이동 순증. 다만 변동성 감소<br>- 갤럭시S26 시리즈 중심 교체 수요 급증으로 인한 번호이동건수 증가율에 주목 | | |
| **Comment** | **- 번호이동 수요가 신규 가입, 점유율 회복과 직결. 경쟁 업체들의 마케팅 동향에 주목** | | |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통신사의 데이터센터 경쟁 우위는 지속될 전망

■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통신사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전망. 데이터센터 시장은 AI로 촉발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입지, 기술적 요구,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는 중. 통신사는 입지 측면에서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커넥티비티, 대형 고객 등을 바탕으로 DBO, 클라우드, AIDC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

■ AI로 인한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수요 대응 중심에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검토하는 중. 과거에는 접근성을 통한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입지가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절대적 우선순위.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학습, 훈련을 위한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추론 등과 같은 실시간 속도와 지연이 중요한 서비스는 Edge DC와 같은 형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 용도에 따라 입지의 우선순위가 다변화되는 중

■ 기술적 요구사항도 급변하는 중. 1)전력밀도. Rack당 전력밀도는 기존 4-8kW에서 최근 AIDC에서는 30kW-150kW 요구, 차세대 플랫폼 Rubin Ultra는 600kW 이상으로 예상. 2)냉각. 공기냉각(CRAC/CRAH)에서 액체냉각(DLC)로 전환되는 중. 이에 따라 3)하중에 대한 요구도 제곱미터당 1t에서 최대 3t로 증가. 더불어 액체 냉각으로 전환되면서 4)에너지효율은 PUE 1.5-1.8에서 1.2-1.3으로 높아짐. 더불어 네트워크도 10G/40G에서 400/800G가 요구되는 중. 27년 2월 시행될 예정인 AIDC 특별법도 기회 요인.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복합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비수도권 하이퍼스케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

■ 최근 AIDC 수요를 감안할 경우 통신3사의 구축 용량은 기존에 제시한 목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통신3사는 현재 보유중인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과 비수도권의 대규모 AIDC 구축을 동시에 진행 중. SK텔레콤은 울산과 구로에 AIDC를 구축중이며 30년까지 300MW 이상 확보 계획, KT는 25년말 가산 AIDC에 이어 경기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내에서도 확장 및 AIDC 전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500M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LG유플러스는 200MW급 파주 AIDC 구축 중

**데이터센터 – AIDC 기술적 요구사항 비교**

| 기존 DC (Cloud · Enterprise) | 구분 | AIDC (AI 전용) |
|---|---|---|
| CPU 서버 중심 | 주요장비 | GPU · AI Accelerator 서버 |
| 4~8kW | 랙당전력 | 30~150kW → 최대 600kW |
| 공기 냉각 (CRAC/CRAH) | 냉각방식 | 액체 냉각 (DLC · Immersion) 필수 |
| 800~1,000kg/㎡ | 바닥하중 | 1,500~2,500kg/㎡ |
| 10G / 40G Ethernet | 네트워크 | 400G / 800G · InfiniBand |
| 1.5~1.8 | PUE 목표 | 1.2~1.3 |
| 수도권 접근성 · 고객 근접성 | 입지 우선순위 | 전력 가용량 · 부지 확보 · 용수 |

자료: kt clou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 주가 현황(해외)

| | 전일 종가 (자국통화) | 시가총액 (십억 자국통화) | 수익률 (%) | | | | | | 주가 추이 |
|---|---|---|---|---|---|---|---|---|---|
| | | | 1W | 1M | 3M | 6M | 12M | YTD | |
| Verizon(VZ US EQUITY) | 45 | 190 | 47.9 | 47.2 | 49.7 | 38.9 | 40.9 | 11.6 | |
| AT&T(T US EQUITY) | 23 | 156 | 24.6 | 25.2 | 27.2 | 24.0 | 26.7 | -9.4 | |
| T-Mobile(TMUS US EQUITY) | 178 | 193 | 188.8 | 192.6 | 216.3 | 199.3 | 233.5 | -12.1 | |
| China Mobile(941 HK EQUITY) | 82 | 1,813 | 83.3 | 82.9 | 76.0 | 83.4 | 82.4 | 0.9 | |
| China Telecom(728 HK EQUITY) | 5 | 625 | 5.2 | 5.3 | 4.9 | 5.6 | 5.5 | -8.3 | |
| China Unicom(762 HK EQUITY) | 7 | 223 | 7.7 | 7.5 | 7.5 | 8.6 | 9.1 | -6.2 | |
| NTT(9432 JP EQUITY) | 147 | 13,338 | 147.9 | 150.2 | 151.4 | 151.2 | 153.2 | -6.6 | |
| KDDI(9433 JP EQUITY) | 2,724 | 10,916 | 2,661.5 | 2,528.5 | 2,640.6 | 2,645.6 | 2,360.4 | 0.6 | |
| Softbank Corp.(9434 JP EQUITY) | 214 | 10,259 | 217.6 | 220.4 | 209.6 | 213.6 | 211.8 | -0.5 | |
| Rakuten(4755 JP EQUITY) | 741 | 1,611 | 780.0 | 747.9 | 786.3 | 958.6 | 823.9 | -26.2 | |
| Deutsche(DTE GY EQUITY) | 28 | 134 | 28.9 | 27.4 | 31.5 | 26.0 | 32.5 | -0.1 | |
| Vodafone(VOD LN EQUITY) | 112 | 26 | 110.0 | 116.5 | 104.9 | 92.9 | 70.2 | 13.1 | |
| Telefonica(TEF SM EQUITY) | 4 | 22 | 4.0 | 3.9 | 3.6 | 3.5 | 4.3 | 11.2 | |

## □ Valuation(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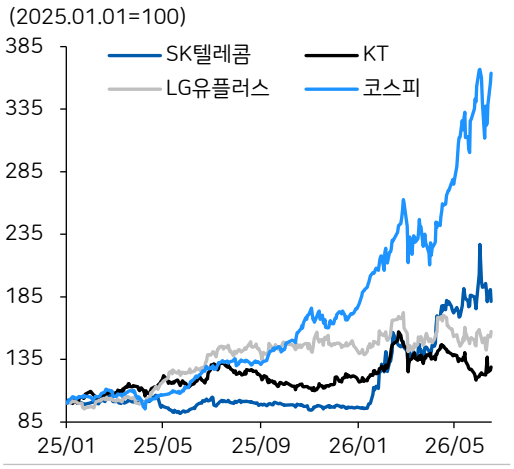
| | PER(x) | | PBR(x) | | ROE(%) | | DPS(자국통화) | | D Yield(%) | |
|---|---|---|---|---|---|---|---|---|---|---|
| | 2026C | 2027C | 2026C | 2027C | 2026C | 2027C | 2026C | 2027C | 2026C | 2027C |
| Verizon | 9.5 | 9.0 | 1.8 | 1.7 | 19.2 | 19.2 | 2.8 | 2.9 | 6.0 | 6.1 |
| AT&T | 10.1 | 9.2 | 1.4 | 1.3 | 13.8 | 14.6 | 1.1 | 1.1 | 4.8 | 4.8 |
| T-Mobile | 17.9 | 13.9 | 3.8 | 3.8 | 21.6 | 27.9 | 4.1 | 4.6 | 2.2 | 2.4 |
| China Mobile | 11.4 | 11.0 | 1.1 | 1.0 | 9.0 | 9.1 | 4.8 | 4.9 | 6.8 | 7.0 |
| China Telecom | 12.3 | 11.5 | 0.8 | 0.8 | 6.3 | 6.6 | 0.3 | 0.3 | 6.1 | 6.6 |
| China Unicom | 9.6 | 9.1 | 0.5 | 0.5 | 4.8 | 4.9 | 0.4 | 0.5 | 6.8 | 7.3 |
| NTT | 11.7 | 11.6 | 1.2 | 1.1 | 10.2 | 10.3 | 5.3 | 5.4 | 3.6 | 3.6 |
| KDDI | 14.4 | 13.5 | 2.0 | 1.9 | 14.0 | 14.5 | 80.4 | 84.3 | 3.0 | 3.1 |
| Softbank Corp. | 17.6 | 17.1 | 3.6 | 3.3 | 20.7 | 19.4 | 8.8 | 8.7 | 4.2 | 4.2 |
| Rakuten | - | - | 1.9 | 1.9 | -3.0 | 3.1 | 0.3 | 0.6 | 0.0 | 0.1 |
| Deutsche | 12.5 | 11.1 | 2.2 | 2.1 | 15.6 | 16.4 | 1.1 | 1.3 | 4.0 | 4.6 |
| Vodafone | 13.1 | 14.0 | 0.6 | 0.6 | 3.6 | 3.9 | 0.0 | 0.0 | 3.6 | 3.7 |
| Telefonica | 11.7 | 9.5 | 1.4 | 1.3 | 12.4 | 12.4 | 0.2 | 0.2 | 4.0 | 4.4 |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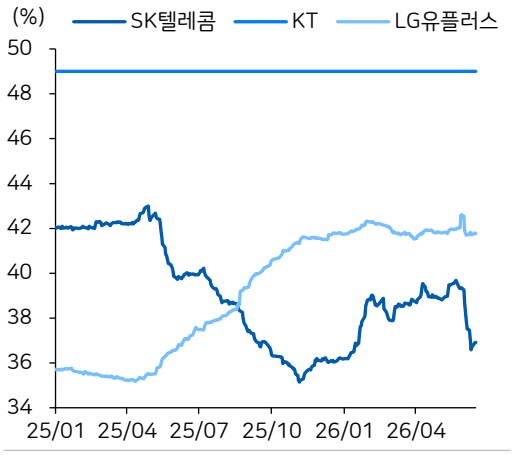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통신3사 주가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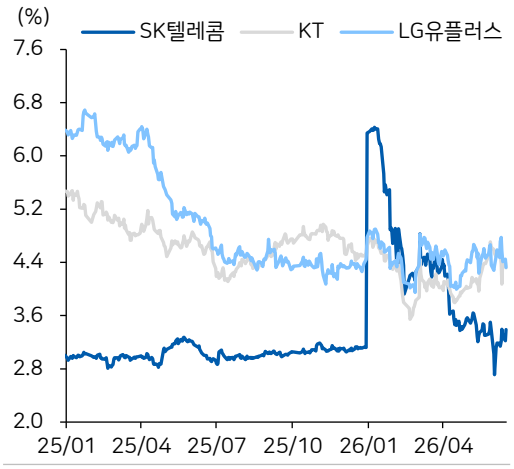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3사 외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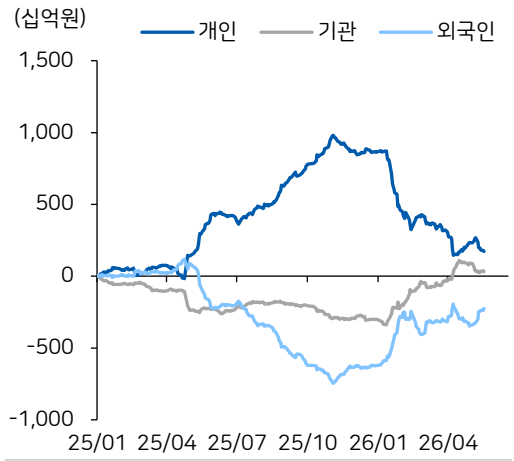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3사 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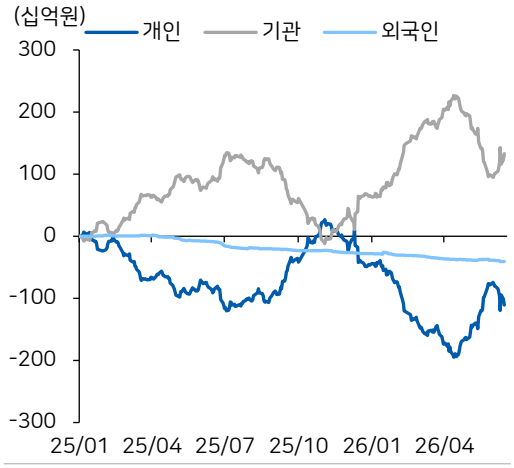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SK텔레콤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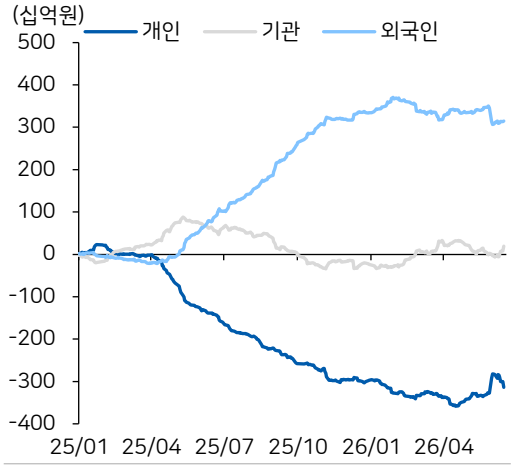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KT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LG유플러스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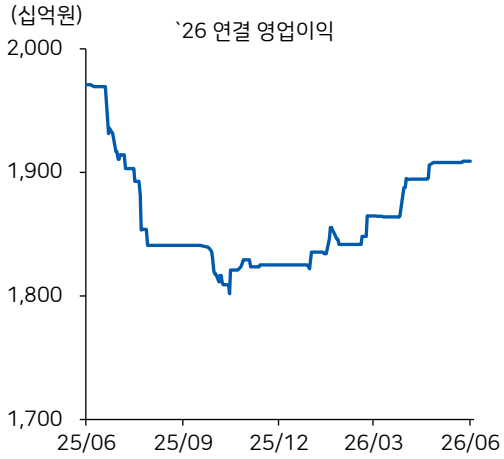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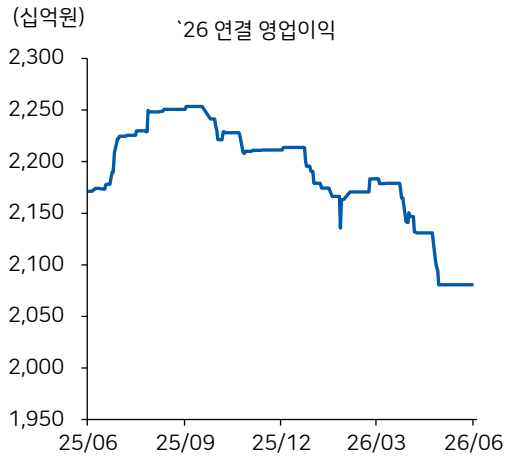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SK텔레콤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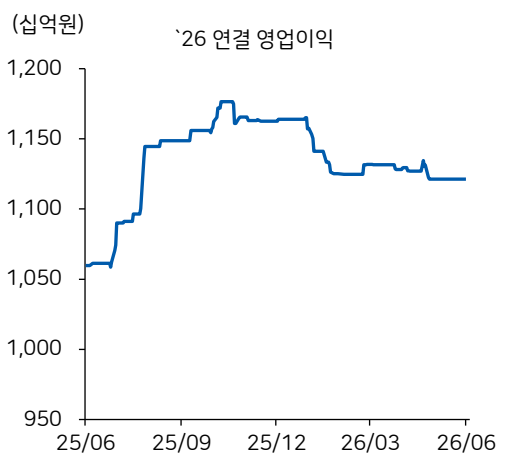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T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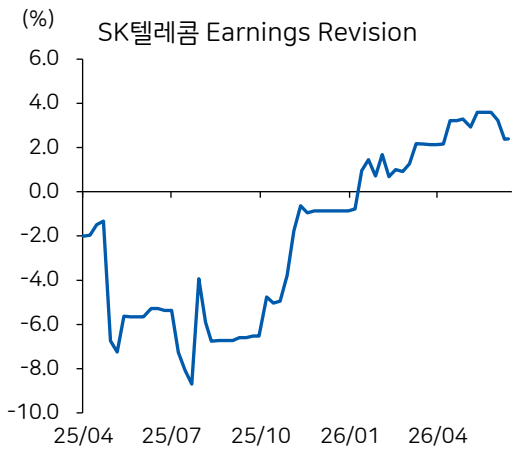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LG유플러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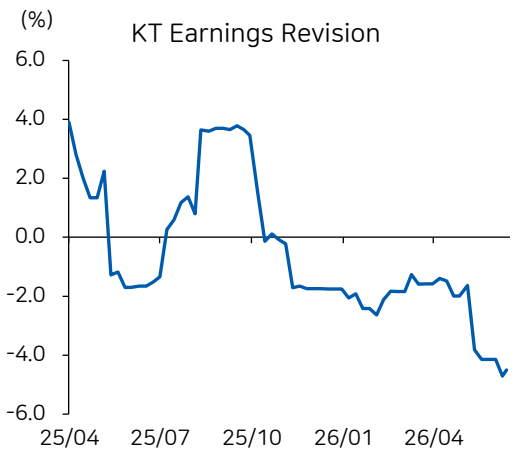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텔레콤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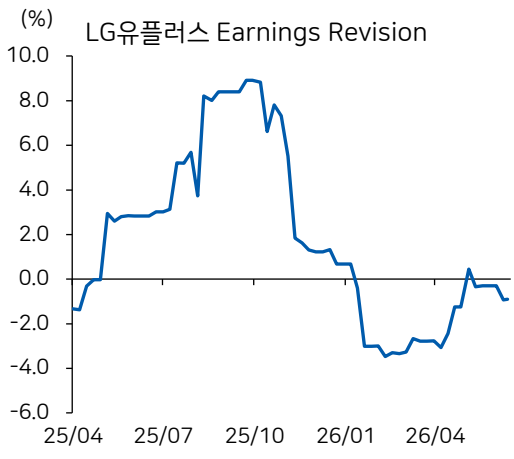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T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LG유플러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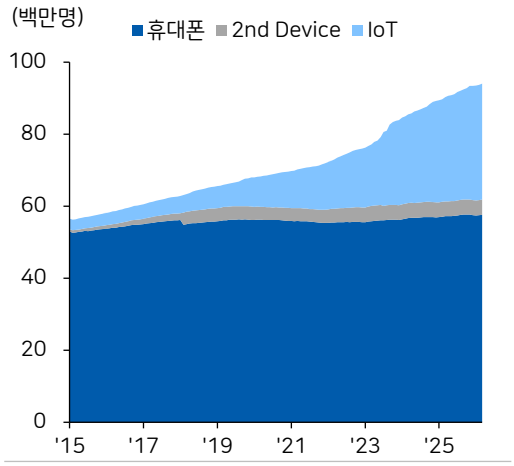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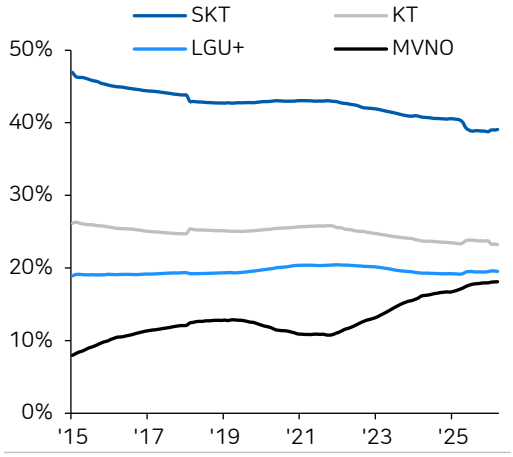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무선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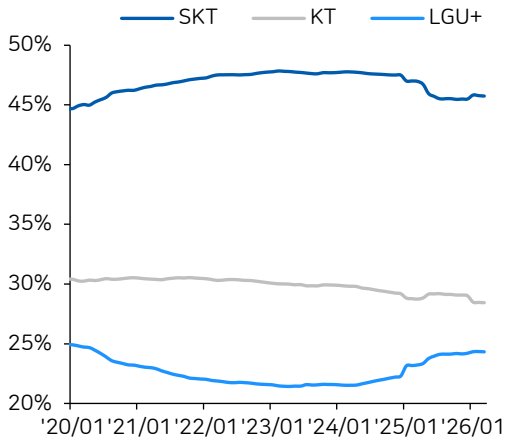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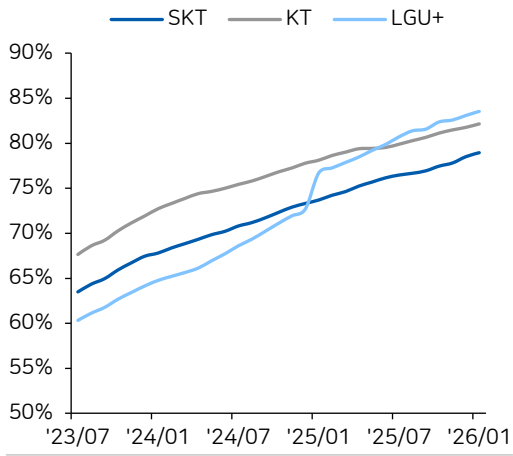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5G(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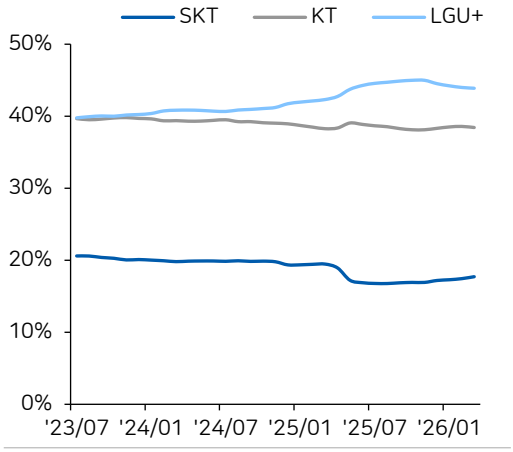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5G(핸드셋) 가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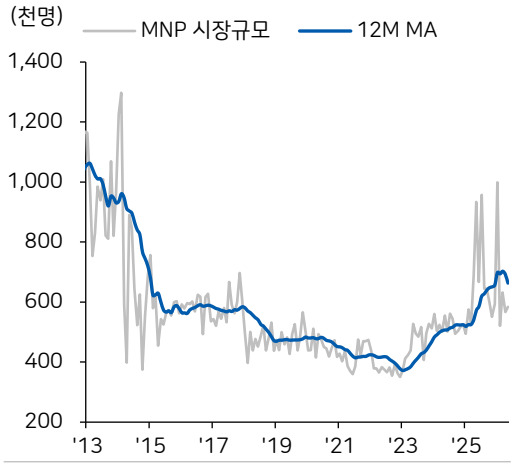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MVNO(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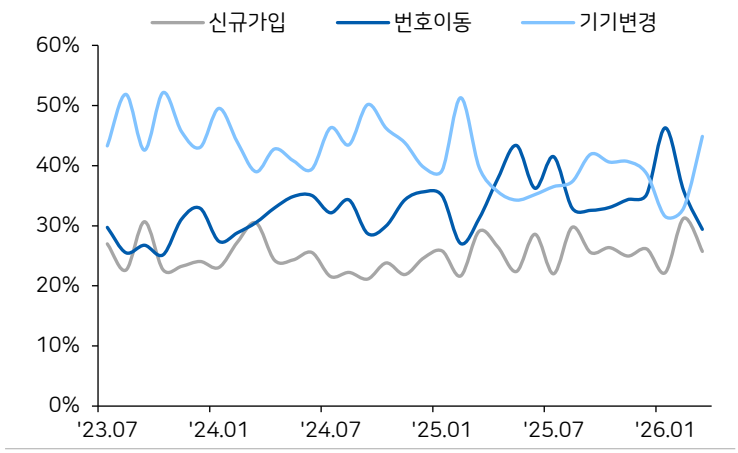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번호이동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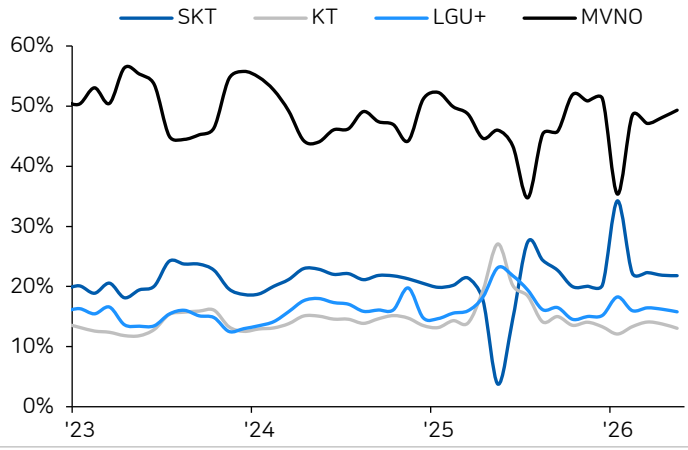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가입유형별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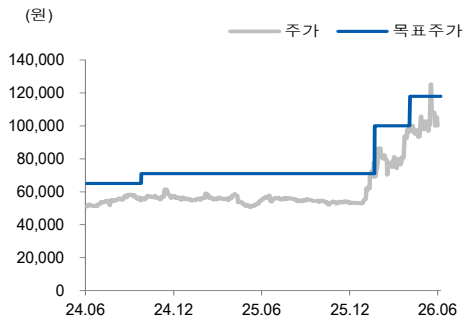
## 번호이동 M/S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SK 텔레콤 (0176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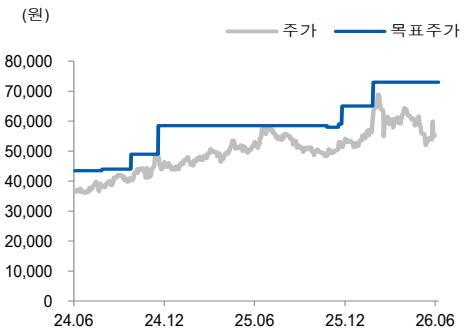

| 일자 | 투자 의견 | 목표가 (원) | 목표가격 대상시점 | 괴리율 | |
|---|---|---|---|---|---|
| | | | | 평균주가 대비 | 최고(최저) 주가 대비 |
| 2026-06-17 | BUY | 118,000 | 1년 | | |
| 2026-04-20 | BUY | 118,000 | 1년 | | |
| 2026-02-06 | BUY | 100,000 | 1년 | -18.85 | -1.70 |
| 2025-10-10 | 1년 경과 이후 | | 1년 | -21.04 | 9.72 |
| 2024-10-10 | BUY | 71,000 | 1년 | -21.53 | -13.38 |
| 2023-10-12 | BUY | 65,000 | 1년 | -19.85 | -10.15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KT (0302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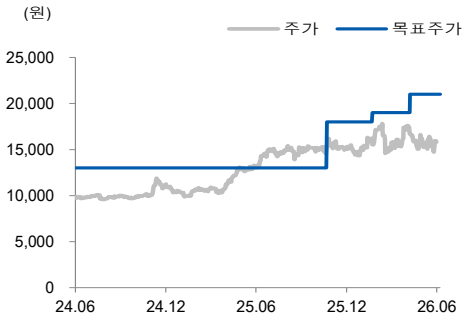

| 일자 | 투자 의견 | 목표가 (원) | 목표가격 대상시점 | 괴리율 | |
|---|---|---|---|---|---|
| | | | | 평균주가 대비 | 최고(최저) 주가 대비 |
| 2026-06-17 | BUY | 73,000 | 1년 | | |
| 2026-02-11 | BUY | 73,000 | 1년 | | |
| 2025-12-10 | BUY | 65,000 | 1년 | -16.68 | -6.62 |
| 2025-12-03 | BUY | 59,000 | 1년 | -11.31 | -10.00 |
| 2025-11-10 | BUY | 58,000 | 1년 | -13.86 | -12.59 |
| 2024-12-04 | BUY | 58,500 | 1년 | -14.10 | -0.17 |
| 2024-10-10 | BUY | 49,000 | 1년 | -10.56 | 0.00 |
| 2024-08-12 | BUY | 44,000 | 1년 | -8.70 | -4.43 |
| 2023-10-12 | BUY | 43,500 | 1년 | -17.59 | -2.99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LG 유플러스 (032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 일자 | 투자 의견 | 목표가 (원) | 목표가격 대상시점 | 괴리율 | |
|---|---|---|---|---|---|
| | | | | 평균주가 대비 | 최고(최저) 주가 대비 |
| 2026-06-17 | BUY | 21,000 | 1년 | | |
| 2026-04-23 | BUY | 21,000 | 1년 | | |
| 2026-02-06 | BUY | 19,000 | 1년 | -14.88 | -6.26 |
| 2025-11-06 | BUY | 18,000 | 1년 | -14.97 | -9.33 |
| 2024-10-12 | 1년 경과 이후 | | 1년 | -4.78 | 18.46 |
| 2023-10-12 | BUY | 13,000 | 1년 | -23.10 | -19.23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구분 | 투자의견 비율(%) |
|---|---|
| Strong Buy(매수) | 0 |
| Buy(매수) | 94.8 |
| Hold(중립) | 5.2 |
| Sell(비중축소) | 0 |
| 합계 | 100.0 |

주: 기준일 2026-06-17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이승웅)
본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이승웅은 (주)KT의 기업설명회 등에 (주)KT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2014년 2월 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